

[목회자 모임]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2019. 2. 22. 이현래 목사

오늘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다.

예수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다.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가? 숫자나 글자를 쓸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글자를 쓰면 그것은 뜻 없는 글자가 된다.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글자를 쓰면 뜻이 있는 글자가 된다. 글자는 그대로인데, 뜻을 붙여 넣으면 뜻 글자가 되고, 뜻 없이 써놓으면 뜻 없는 글자가 된다.

그 경우에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뜻을 붙여 넣는 사람이 그 글자에 생명을 붙여 넣은 것이다. 뜻을 붙여 넣은 자가 그 글자의 하나님이다. 글자는 그냥 죽은 것인데, 거기에 어떤 뜻을 붙여 넣는 것은 사람이다. 그 뜻을 붙여넣은 것이 그 글자가 살아나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했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까 생명이 된다고 하지 않겠는가? 또 육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살을 먹고 저 피를 마시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라고 말했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냥 듣는 사람들은 ‘자기 살을 어떻게 주겠는가?’ 했다. 한쪽에서는 비난하며 듣고, 제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열두 사람만 남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요6:67).”고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6:68).”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이라는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붙여 넣는 것이 생명이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주시는 이로 인해서 산다. 그래서 동산에서도 생명

나무를 두었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명 길을 열어 놓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지식을 택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지식 관계뿐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데 지식으로 알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 그런데 생명으로는 잘 모른다. 우리도 그랬다.

예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이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내 생명이 되는가? 이것이다. 그 말은 갈라서 말하기 위해서 레마와 로고스로 대비해서 위치만니가 이야기했다.

우리가 늘 들었던 것은 로고스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로고스이다. 그분이 말할 때는 레마였다. 레마는 즉각적으로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할 때 레마라고 로고스는 기록된 것을 말한다. 기록된 것은 언제든지 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된 체로 생명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물론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썼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했다.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도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C.C.C.에 가니까 생명 이야기를 많이 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는 그 말씀이 듣기 아주 좋은 말 같은데 아주 애매하다. 무엇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가? 무엇을 더 풍성히 얻고 어떻게 얻게 된다는 뜻인가?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C.C.C.는 전도하는 기관이니까 전도를 하면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런 개념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 희미했다.

구약을 표현할 때 달빛이라고 표현한다. 태양빛처럼 밝은 것이 아니고 빛은 빛인데 어스름하다.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운 어스름한 상태이다. 신약이 온 것은 이

어스름한 달밤을 지나서 밝은 대낮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밝은 대낮을 만난 것이니까 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이 아닌데서 구약을 보게 되면 그냥 달밤 같다. 달밤도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보려면 달밤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략 분간만 하는 것이지 확실히 보려면 안 보인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옛날 나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는 달밤이었구나.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생명은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빛은 없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밝으면 확실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희미해진다.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이 밝으면 확실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희미해진다. 그래서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도 성숙하면 확실히 보이고 성숙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다.

어린 아이들은 활동력(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루 종일 뛰다. 어른은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생명력은 왕성한데 분별력은 약하다. 살기는 사는데 확실하지 않다. 커서 보면 손 놀이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는데도 둔하다.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야만 세밀해진다. 빛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사람은 만유에게 생명이 되도록 지어졌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는 말은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이다. 내가 어떤 물건에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 없이 죽은 것이다.

이번에 TV에서 봤는데 놀랐다. 요즘에 애완용 개를 반려견이라고 한다. 애완용에서 한 단계 높여서 반려견이 되었다. 그런데 그 반려견 시장이 돈이 엄청나게 크다. 그 정도 돈이면 아프리카 국가 하나를 도울 만큼 된다. 그런데 숫자를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저렇게 많은가 싶었다. 저렇게 많은 돈이 저 산업에 쓰여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면 동물 애호가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동물도 사람과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요즘 동물 학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안락사 시켜도 되는 것도 있고, 안락사 시키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어느 개를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개를 안락사 시켰다고 해서 난리이고 시끄럽고 데모도 한다. 별천지 같은 일이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법을 정하자고 하고 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묘한 것이 세상이다.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부격차가 심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수백억 돈이 반려견에게 들어간다. 아이 키우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은 보험이 있어서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러나 반려견은 보험이 없다. 그래서 한번 가면 몇 만원씩 든다. 요번에 어떻게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개 한 마리 수술비가 25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사람도 그렇게 해서 보험 없이 병원에 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어려서 보험이 없을 때, 시골에서는 차라리 죽지 그랬다. 눈 몇 마지기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병들어서 병원에 가보면 금방 거덜 나는 것이다. 가난한 집에서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그 사람 살리려고 병원에 가면 온 식구가 다 굶어죽는다. 그것이 보험 이전에 우리 실상이었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 박*희대통령이 잘한 것이 의료보험이다.

개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상대적인 빈곤이 심하다고 난리이다. 세상이 참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산 것이 될 수도 있고, 죽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서양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니 너희는 만유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상대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생명을 주는 자가 된다.

예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다른 사람들은 담을 넘어와서 양을 잡아가고 죽이려 했지만 나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양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이다.

똑같은 반려견에게도 생명을 주기만 할 수도 있고 더 풍성히 줄 수도 있다. 어

면 반려견은 그 반려견에게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다. 그것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이 있으니까 어떤 개는 싼 것을 입고 다니고, 어떤 개는 비싼 것을 입고 다닌다. 우습지 않은가? 개들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복덩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도 그렇게 대우 못 받는 사람도 많다. 불공평할 것 같은데 이것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에겐가 생명을 줄 자이다. 살릴 자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생명은 풍성해진다.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개도 있고, 어떤 개는 호텔까지 가는 개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겨우겨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을 날마다 공급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아는 차이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요17:3).”

내가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다.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목사님은 뭐가 다른 사람과 다르냐고 한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고 한다. 다 예수를 아는데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예수 알면 댜지 무엇을 더 아느냐고 한다.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진다.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분명해진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진다. 분명해진 것만이 아니고, 또 풍성해진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

이미 서양 사람들은 예수는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달밤에 아무리 체조를 해봐야 그것이 별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 생명에 그 수준이지 열심히 해서 더 잘한다고 해서 다른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보았자 그 수준이다. 그리고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대학교를 졸업한 수준으로 가르치겠는가?

우리 생명이 풍성할수록 더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고, 분명할수록 더 분명하게

공급이 된다. 그냥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평생 알아도 다 모를 분이 그분이다.

나도 옛날에는 예수를 다 아니까 더 안다고 할 필요가 없었다. 교회 다니면 예수를 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다 예수를 안다고 한다. 다 잘 알고 있다. 그 ‘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수는 너희는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고 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 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주었는가? 도적은 무엇을 죽인다는 말인가? 도적은 인권을 말살한다. 사람에게 와서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을 빼앗아 간 것이다.

어떻게 인권을 빼앗았는가? 위치를 이탈시킴으로써 우리가 부여받은 인권을 빼어간 것이다. 계급장을 주고 나서 빼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 계급장 하나 속에 많은 것이 들었다고 한다. 소령에게 부여된 것이 다르고, 중령에게 부여된 것이 다르다고 한다. 그것마다 특별한 권리가 있다. 위치를 이탈하면 그 권리를 못 갖는다.

사탄은 사람에게 와서 술을 마시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으로서의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하는데 위치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인권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야 하는데, 호미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는 것과 똑같다. 열심히 100배로 노력하더라도 톱으로 한 번 자르는 것만 못하다. 사람들은 자기로서는 다 최선을 다한다. 농땡이 치고 사는 사람 없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호미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니까 잘라지겠는가?

평화를 다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좋은 것을 다 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그런데 세상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그것은 호미로 땅을 파야 하는데, 호미로 나무를 자르려니까 되겠는가? 위치가 이탈되면 일이 안 된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없다. 위치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다 해놓았다. 땅은 만유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없는가?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권세가

없다. 오히려 만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기 싫으니까 만물이 탄식한다고 한다. 사람이 와서 이려고저려고 하는데, 나무도 잘라져서 목재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호미를 들고 와서 계속 찍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무엇을 해주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내 죄를 용서해주어서 그렇다. 나를 위해 희생해주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이 다 많지만 나는 그것이 안 되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 준 것이 없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었다고 믿어지는데 예수가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는 안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 어떻게 그가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가가 안 되었다.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무조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지금 와서 볼 때, 내 위치를 회복해주었구나.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것도 보이는 것도 없다. 위치를 회복해 주었구나. 비로소 사람의 위치에 왔구나.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술 먹던 사람이 안 먹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먹은 사람도 있다. 싸움 하던 사람이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싸움을 안 한 사람도 있다.

예수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다.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 무시했다가 도리어 당한다. 박*희대통령에게 쫓아간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들어갔던 것 같다. 성령이 도와주었는지 용기가 좋아서 갔다. 청와대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되느냐고 했다는데, 대통령이 듣고 나서 당신이나 가서 잘하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위치가 이탈되면 자기가 가서 할 짓이 아닌데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가서 한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보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다. 구속은 위치 회복을 통해서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인권이 회복되면 내게 권리가 없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권리가 많은 데 못 쓰고 있었지 권리가 없는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26).”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가 부활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가?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11:32).“하고 우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26).”라고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다. 생명을 회복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인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고, 사람으로서 책무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는 부활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이다.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위치를 잃고 사는 사람과 지금 위치를 알고 찾아서 사는 사람은 다르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국민도 나라를 잃어버리면 위치를 잃어버린다. 그 사람은 국민으로서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대동아 전쟁 때 중국 사람들을 잡아다 별 짓을 다 했다. 123이라는 부대가 중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실험한 곳이다. 한국 사람에게 생체실험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중국인들에게는 많이 했다고 한다.

얼마나 기온이 내려가면 사람이 죽는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한다. 손가락에 얼마나 온도가 내려가면 동상이 걸리는가? 이런 것을 산 사람에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를 다달이 쪼개서 아기 성장을 관찰했다고 한다.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가? 나라를 잃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차피 죽을 놈들이고 어차피 처형될 것이니까 실험하고 처형하자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다.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일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어차피 죽을 놈인데 의학 연구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히틀러 정권 하에서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그 사람들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

사람에게서 기름을 빼서 세숫비누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니까 그냥 죽는 것보다 과학발전을 위해서, 의학발전을 위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도 독일 계통에서는 미국 쪽에서 모르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독일과 의학적인 면에서 관계가 없어서 독일 약은 쓰지도 않고 독일 의학은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나는 분명히 뭔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정말 죽은 사람이 생명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노릇을 하는가?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평생을 공부해도 마지막에 나온 것은 도로 자기이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계속했다. 나라가 다 망해서 통째로 빼앗기도록 싸움만 하고 있었다. 안방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당파싸움만 권력싸움만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만 공부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랬다.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이 났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빛이 있으라 하니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생명이다. 빛이 있으라 하니깐 그대로 되니라. 땅이 솟아나라 하니깐 솟아나더라. 이것이 생명이 아닌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닌가? 그가 말씀한 대로 되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깐 시키는 대로 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받은 것이다.

태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빛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있으라 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라는 것이다. 빛이 있으라 하니깐 빛이 있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을 읽어 보면 전부 ‘그대로 되니라.’이다.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다. 잘 됐다 고 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위치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 주시는가? 바로 이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로

풀어 말한다면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네 위치가 흐트러졌으니까 나를 보고 너도 나처럼 되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못 본다면 불교에서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평생 찾아야 된다. 평생 찾는다고 아는가?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 뱀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말 천말 말하더라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처럼 ‘**너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니까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안 듣는 것을 보고 심판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무슨 또 다른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더 이상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없다. 모두가 안 되면 하나님도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시험점수가 다 10점 밖에 안 나온다면 선생이 시험 문제를 다시 내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의 무궁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을 장대에 매달린 놋 뱀으로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옛날에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떠날 수 없다.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변경될 수가 없다.

예수를 모시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써 보았지만 안 되었다. 내 자격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되었다. C.C.C.에 가서 많이 해보았지만 안 되었다. 지금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모시려고만 생각했으니 그것이 되겠는가? 안 될 일이었다.

호미로는 땅을 파야 되고, 톱으로는 나무를 잘라야 되는 용도가 있다. 위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가 이탈되고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호미를 가

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가지를 가지고 태평양 물을 다 담으려고 한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짓을 하게 된다. 어떤 통이 있어서 태평양의 물을 다 담겠는가? 있는 대로 봐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복된 말씀이다. 그대로 되니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알 수 없다.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다.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된다. 내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곳이 있다.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그렇다.

글자를 써놓고 내 뜻을 거기에 넣으면 글자가 그렇게 된다. 내가 1이라고 명령하면 1이 되는 것이다. 2라고 명령하면 2가 된다. 123을 써 놓고 백이십 삼이라고 읽으면 백이십 삼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부여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없겠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고, 만물에게는 우리가 그렇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만물은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너는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가 되는 것이다. 너는 장미꽃이라고 하면 장미꽃이 되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못하게 말리는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대부분의 문제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일 크다. 부모는 잘한다고 했고, 자식을 위한다고 했는데, 빗나가 버리는 것이다. 자기는 뭘 애를 써서 준다. 아무 관심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가 없다. 밥을 먹거나 말거나 놓아두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

옛날에 시골에서 아이들은 많고 밭에 가서 할 일은 많고 아이들을 돌 볼 시간은 없어서 그냥 두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았다.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없었다. 지금도 그냥 놓아둔 아이들은 문제가 별로 없다. 기어코 뭘 시키거나 출세를 시켜야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닦달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잘못된 선생은 차라리 농땡이 치는 것이 낫다. 열심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해방 후에 2학년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글을 다 알고 갔고,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몰랐다. 나에게 나와서 한글을 가르치라고 하여 내가 가르치니까 선

생님이 민망한지 너는 3학년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래서 멋도 모르고 3학년으로 올라갔다. 그때 만난 선생이 남로당 출신이었다. 그래서 공산당 노래도 배우고 그랬다.

그런데 그분에게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아침에 들어오면 흑판에 삼년고개를 그렸다.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자습하라고 해놓고 나가 버린다. 그때는 교과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던 시대였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 오는 것이다. 일본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동안에 뭘 하는지 모른다.

그런 선생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가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남로당인데 선생이 사명을 다한다고 열심히 가르쳤다면, 정식으로 가르쳤다면 우리는 뭐가 되었겠는가? 국립 경찰이 우리 동네가 소재지니까 우리 동네 경찰서에 들어오기 전날 바로 잠적해 버렸다. 다 연락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 면에서 알기로는 두 사람이 남로당이였다. 6.25 때도 못 보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 선생은 삼년 고개만 그려 놓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잘못했으면 우리가 빨갱이가 될 뻔했다. 옛날에는 선생님 때문에 좌경화된 사람이 많다. 철저한 이념을 가진 선생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좌경화된 사람이 많다.

우리가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농땡이 치는 것이 낫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제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생사를 걸고 해야 된다.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는가?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조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있으라 하니깐 그대로 되니라.” 너무 놀라운 말이고 귀한 말이다. 있으라 하니깐 그대로 되니라. 우리 보고도 너도 그래라.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해라. 이 말인데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

우리 생각대로 부모는 좋은 것을 준다고 애를 썼는데 다른 것이 나와 버린다.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왔다. 만나자마자 나에게 물어 보기를 목사님은 누구 편이냐고 물었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냐고, 왜 그런 말을 하겠는가? 내가 얼른 눈치를 채고 내가 네 편이지 누구편이냐고 했더니 얼굴이 확 밝아졌다. 나는 네 편이다. 자기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다.

최소한도 엄마는 자기편이어야 한다.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너무 합리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가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진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다. 잘하든 못하든 내 편이다.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다.

합리적이라는 부모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한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되어 버렸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 하나를 못한 것이다. 모를 바에는 차라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무식하고 모를 바에는 무식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빛나가지 않는다.

고아들이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해서 친구들에게 물렸을 때, 부모가 없으니까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어디든지 가면 율법교과서를 만드니까 잘못된 사람은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갈 데가 있다. 이것을 성적표 보고 평가하면 되겠는가? 엄마는 성적표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 선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엄마까지 그래 버리면 갈 데가 없다. 학교에 가도 집에 와도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것인데, 위치가 이탈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 버린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른다. 자기대로 가르쳤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에게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가면 될 줄로 생각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7,9).”

생명에 관한 말이 무지무지 많다. 이것이 예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한 대로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분들은 사람들 앞에 서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큰 영향을 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 잘못하면 안 되는 직책이다. 사람의 인권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다.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 다른 것은 다 다를 수 있다.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아닌가? 사람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귀중한 임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영광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